

중국 산둥성과 녹색산업 협력 재가동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환경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중국 산둥성 생태환경청과 녹색산업 협력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우리나라와 중국 산둥성 간의 녹색산업 분야 대면 협력사업을 내년부터 재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환경부와 중국의 산둥성은 2005년부터 정부 간 녹색산업 협력 실무위원회 운영하고 그에 따라 기업 간 교환 시찰 및 현장 기술교류수출 상담회 등을 개최해왔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교환 시찰이 중단되고, 현장 수출 상담회도 비대면(온라인)으로 열리는 등 실질적인 협력 효과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한중 산둥성 간 녹색산업 교류 협력 체제를 다시 회복시키기로 결정했다. 특히 내년은 한-산둥성 간의 교류·협력이 2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나라 녹색산업체가 중국 산둥성에 방문하여 현지 발주처 및 관련 기업들과 1대1로 상담하는 현장 수출상담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양국의 기업들이 서로의 녹색기술·산업 현장을 탐방할 수 있는 교환 시찰이 재개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 관심이 있는 분야의 현장을 방문하고 시장 조사를 하는 한편, 중국 기업들도 우리 우수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방문할 수 있도록 상호 초청할 예정이다.

중국은 녹색시장의 규모가 커 국내 녹색산업체의 진출 수요도 높지만, 정책 및 제도가 갑자기 급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산둥성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협력·교류가 제한됐던 중국 생태환경부, 허베이성 등과도 녹색산업 협력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국은 환경분야 협력이 중요한 국가”라며, “중국과 녹색산업 협력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녹색산업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인 수출 판로(채널)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한-중국 산둥성 실무위원회 중국측 참석자.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녹색산업 해외진출지원단	책임자	단 장	장이재 (044-201-7560)
		담당자	사무관	김원빈 (044-201-7562)



산둥성 생태환경청 청장

국문명	허우 추이룽(侯翠荣)		
영문명	Hou Cuirong		
생년월	1969년 3월		
출신 및 학력	산둥 장치후 출신		
	화동 사범대학 환경과학과 졸업		
	공학박사		
주요 근무 경력	2017년 5월	지난시 환경보호국 국장, 당 서기	
	2019년 3월	지난시 생태환경국 국장, 지난시 인민정부 부 비서장	
	2021년 2월	산둥성 생태환경청 부청장	
	2023년 1월	산둥성 생태환경청 청장	